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보낸 답신에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한 뒤 “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과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해드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측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대풍 피해를 거론하며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시지, 어떤 중압을 받고 계실지,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 것만 같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는다”며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리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다”며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다. 진심을 다해 모든 이들의 안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은 3월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친서를 주고받았다. 당시엔 김 위원장이 먼저 친서를 보냈다. 그는 3월 4일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낸 친서에서 “(남측이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며 “남녘 동포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고,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겠다고 하며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보냈다고 청와대 측은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 감사의 답장을 보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의 대남비난은 김여정 제1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트집 잡으면서 재개됐다. 김 부부장은 12월 8일 담화에서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해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욱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속심이 뻔히 들여다보인다”며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이 5일 한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도전(코로나19)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한 데 대해 발끈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으며 방역에 인간임을 쓰는 상황을 남측 외교장관이 정면으로 부정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은 끝내 남측 지원을 모두 거부했다. 2019년에 결정했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5만에 이르는 대북 쌀 지원도 이뤄지지 못했다.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고려해 쌀 지원을 결정했지만 북한은 처음에는 한미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수령을 거부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진척이 없었다. 운송비·장비비·모니터링비 등을 포함한 사업관리비로 WFP에 지급했던 비용을 12월에 환수하면서 대북 쌀 지원 사업은 성과없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한편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2월 29일 공포됐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에 맞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

북한은 장기적인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 태풍 피해까지 겹치는 삼중고 속에서 내치에 힘을 쏟았다. 김 위원장은 10월 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2021년 초로 예고한 8차 당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80일 전투’를 연말까지 전개하기로 했다.

10월 10일에는 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개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열병식 기념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외부 위협에 맞서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밤 0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적대 세력들의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해 자위적 정당 방위수단으로서의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 중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핵’도 적시하지 않았다. ‘자위적 억제력’이라는 표현으로 핵무기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오로지 체제 수호를 위한 수비용임을 거듭 피력했다. 남측에는 짧지만 분명한 유화적 메시지를 내뿜었다. 김 위원장은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코로나19)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사그라지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한 메시지였다.

김 위원장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수해로 인한 ‘삼중고’로 힘들었던 한 해를 짊어지며 인민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도 거듭 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 중간에 울먹이며 “너무

도 미안하고 영광의 밤에 그들(장병)과 함께 있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프다”고 덧붙였다. 연설 내내 극존칭을 사용하며 “미안하다”, “고맙다”, “감사” 등의 표현을 10여 차례 사용하며 주민들에게 감사와 신뢰를 보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진행된 열병식에서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다. 신형 ICBM은 길이와 직경이 커진 것으로 미뤄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탄두부에 핵탄두 2~3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미사일’(MIRV) 형태로 진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신형 SLBM ‘북극성-4A’도 직경이 굵어졌고, 역시 다탄두 탑재 가능 형태로 발전했다.

이번 신형 ICBM의 길이는 22~23m 또는 23~24m가량으로 추정됐다. ICBM 길이로는 세계에서 가장 길다. 군 관계자들은 21m 길이의 화성-15형보다 진화한 사실상 ‘화성-16형’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미니트맨-3은 길이 18.2m, 중국 신형 DF(동풍)-41은 21m, 러시아 신형 토폴-M은 22.7m다.

북한의 신형 ICBM은 직경도 역시 이들 국가 ICBM보다 굵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신형 ICBM의 직경이 커진 것은 1단과 2단 추진 엔진에 큰 변화를 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화성-15형은 1단에 화성-14형에 사용된 백두산 엔진 2기를 장착했고, 2단에는 보조엔진 4~6개를 달았다. 그러나 신형 ICBM 1단은 엔진 최대 4기를 장착했고, 2단은 작년 12월 두 차례 시험에서 7분간 연소했다는 새 엔진을 달았기 때문에 직경이 커졌다는 것이다.



▲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신형ICBM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진 모습이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가 신형 ICBM을 싣고 등장했다.

탄두부가 개량된 것도 큰 특징이다. 신형 ICBM의 탄두부 형태는 둥글고 뚱뚱한 화성-15형과 달리 미국 ICBM ‘미니트맨-3’과 닮았다. 이 탄두부에 후추진체로 불리는 PBV(Post Boost Vehicle)가 장착된 것으로 식별됐다. PBV는 다탄두 탑재형 ICBM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북한이 다탄두 ICBM을 개발했다면 이론적으로 워싱턴이나 뉴욕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다탄두 ICBM을 개발하려면 PBV 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형 ICBM은 길이와 직경이 커진 만큼 사거리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전문가들은 화성-15형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만큼, 이번 신형 ICBM은 사거리 증대보다는 위력이 큰 핵탄두 또는 2~3개의 다탄두를 탑재하는 데 중점을 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지난해 개발한 발사관 6개를 탑재한(6연장)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공개했다. 북한 중앙TV에 나온 신형 SLBM 동체에 ‘북극성-4A’로 추정되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SLBM ‘북극성-4A’도 ‘다탄두’ 형태로 개발됐다고 분석했다. 하나는 길이가 짧고, 하나는 더 긴 두 종류가 식별됐다. 길이가 긴 것은 진수가 임박한 로미오급 개량형인 3천급 잠수함(3발 탑재)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짧은 것은 4천~5천급 잠수함용(6발 탑재)으로 추정된다. 동체를 탄소섬유로 제작해 무게를 줄였고, 사거리도 북극성-3형보다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처음으로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판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미군 스트라이커와 유사하다. 115mm 전차포와 ‘불새’로 불리는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2종류가 식별됐다. 바퀴가 ‘4축 8륜(8개)’으로 미군 장갑차를 모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5mm 전차포와 대전차미사일 불새를 탑재한 신형 전차도 이번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옛 소련 T-52/55, T-62 전차를 복제한 천마호, 폭풍호, 선군호 전차와 외형과 전혀 다른 신형 전차로 분석됐다.

2종류의 다기능 레이더와 러시아제 지대공미사일(TOR)을 장착한 트레일러 차량 탑재형 신형 SAM(지대공미사일)도 처음 등장했다. 기동력이 좋아 다양한 장소에 배치되어 항공기나 무인항공기 요격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KN-06(번개) 지대공미사일과 240mm 방사포 차량이 신형으로 바뀌었고, 스파이크 미사일과 유사한 장비를 탑재한 경장갑차도 식별됐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은 차륜형 및 무한궤도 차량에 각각 탑재됐고, 북한판 에이테킴스인 전술지대지미사일은 무한궤도형 차량에 실렸다. 비포장도로나 들판 등에서 기동이 쉽도록 무한궤도형 차량에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 KN-23은 비행 종말 단계에서 ‘풀업’(pull-up·활강 및 상승) 기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